

‘서귀포 도시 우회도로’ 논의 평행선

학생문화원 일대 지하차도 개설 이견... 사업중단 장기화도 “주민 반대” VS 교육청 “지상차도 건설시 안전 우려”

‘서귀포 도시 우회도로’ 개설 사업과 관련 제주도와 제주도교육청의 입장차가 좁혀질 조짐이 없으면서 사업 중단이 장기화되고 있다.

더욱이 최근 제주도가 서귀포 도시 우회도로 사업과 관련해 제주도교육청에 우회도로 사업으로 사라지는 ‘공일’을 대체하는 녹지 공간을 제공하는 방안을 제안했지만 도 교육청이 이러한 제주도의 제안을 받아들이지 않으면서 또 다시 사업 추진이 미궁 속에 빠졌다.

9일 제주도에 따르면 도가 추진하는 서귀포 도시 우회도로 사업과 관련해 서귀포학생문화원 일대에 계획된 지하차도는 반대 여론이 강해 추진이 어려운 실정이다. 이에 따라 서귀포시에 당초에 계획됐던 지하차도

를 지상차도로 변경해야 한다고 공식 요청했다. 또한 지상차도로 조성될 경우 서귀포학생문화원의 녹지공간이 훼손이 불가피함에 따라 서귀포 테니스장’을 녹지공간으로 조성하는 방안을 도 교육청에 제안했지만, 도 교육청이 이를 받아들이지 않기로 하면서 사업 추진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와 관련 도 교육청 관계자는 “제주도의 제안을 검토했으나, 테니스장에 녹지 공간이 조성될 경우 아이들의 접근성이 떨어진다는 판단에서 제안을 받아들이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이어 “폭 35m의 도로가 서귀포 학생문화원 앞에 들어서면 큰길은 건너 학생문화원을 이용해야 하

는 어린이들의 안전이 우려된다”며 “서귀포 도시 우회도로 구간을 서귀포학생문화원을 돌아서 갈 수 있도록 사업 계획 변경을 지속해서 제주도내에 건의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한편 제주도는 2023년 준공을 목표로 서귀포시 호근동 용당에서 토평동 삼성여자고등학교까지 길이 4.2km 폭 35m 규모의 서귀포 도시 우회도로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이 일환으로 도는 우회도로 중 가장 혼잡한 서흥동에서 동흥동 서귀포학생문화원 앞 잔디광장을 거쳐 동흥로까지 이어지는 1.5km 구간(지상 6차선)을 우선 사업으로 정해 2021년까지 완공할 계획이었다. 그러나 도교육청은 기존 지상 6차로를 지하 4차로로 변경해 서귀포학생문화원 내에 있는 어린이공원을 존치해야 한다는 입장을 보이면서 우선 사업 구간은 2017년 5월 실시설계가 착수된 이후 지난해 9월 중단됐다. 이태윤기자



지난 8일 서귀포시 성산포항 종합여객터미널에서 관광객들이 우도로 가는 도항선에 오르고 있다.

이상국 수습기자

우도 차량제한 연장에 뱃삯 올리는 선사

도, 최근 주민간담회 열고 렌터카 등 제한 유지 논의 사실상 ‘3년 더 연장’ 검토

우도 도항선 운영 선사 3곳 편도요금 3500→4500원 인상 성수기 앞두고 부담 예상 해운사 “요금 현실화 차원”

‘섬속의 섬’ 우도의 교통혼잡과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등록지와 차고지가 우도면이 아닌 외부 전세버스와 렌터카의 통행을 제한하는 시기 완료를 앞두고 제주도가 이번엔 3년간 통행제한 연장을 추진중이다. 이런 가운데 성산항~우도 항로에 도항선을 운영중인 3개 해운사가 이달 중순부터 선박요금 올리기로 해 성수기 관광객들의 부담이 예상된다.

9일 제주도에 따르면 2017년 8월부터 시행해 작년 8월 1년 연장한 ‘우도면 일부자동차 운행 제한’ 기한의 이달말 완료를 앞두고 2022년까지

3년 연장을 검토 중이다. 올해 해운사, 우도면단체장협의회 등을 통해 주민들과 소통해 왔고, 지난 5일에도 우도 주민, 단체장, 상인, 해운사 관계자들이 참석하는 간담회를 열어 우도의 가치 보전을 위해 차량 통행 제한 연장의 필요성을 논의했다. 도는 경찰청과 협의를 거쳐 이달 중순쯤 ‘우도면 일부자동차 운행 제한 재연장 공고’를 낼 예정이다.

이런 가운데 성산항~우도 항로에서 도항선 8척을 운항중인 3개 해운사는 8일 서귀포해양경찰서에 선박요금 편도 기준 3500원에서 4500원으로 인상하는 변경신고를 접수했다. 요금 변경은 유선 및 도선 사업법에 따른 신고사항으로, 해경은 특별한 하자가 없는 한 3일 내에 해운사에 통보할 예정이다. 이번엔 요금이 오르게 되면 17년간 동결했던 도항선 이용료를 2017년 8월 2000원에서 3500원으로 올린지 2년만에 이뤄지는 인상이다.

해운사 관계자는 이번 요금 변경 신고와 관련해 인상이 아닌 현실화라고 밝혔다. 제주시 한림항~비양도

(1.8마일) 요금(4500원)이나 다른 지역 도항선 요금과 비교하면 우도 도항선(2.1마일) 요금은 현실성이 떨어진다는 것이다. 또 우도내 렌터카 차량 제한으로 수입이 전년보다 30% 이상 감소했고, 주52시간 근무에 따른 추가비용 발생, 세월호 사고 후 선취 제한을 30년에서 25년으로 단축하면서 새로운 선박으로 대체할 시기가 빨라지면서 요금 인상이 불가피하다는 입장이다.

하지만 일각에선 요금 인상이 여름철 성수기를 앞두고 2년만에 또 오르는 것인데다, 제주에서 렌터카의 통행 제한을 3년 연장한 시점에 맞춰 이뤄지면서 급지 않은 시선을 보내고 있다.

우도 도항선을 운항하는 한 해운사 관계자는 “타 지역 도항선 요금을 감안하면 그동안 우도 도항선 요금은 저렴한 편이었다”며 “게다가 정부의 선박 선령 단축으로 당장 내년부터 새로운 선박을 건조해야 할 해운사가 생겨나는 등 경영사정을 감안하면 이번 요금 인상은 불가피한 상황”이라고 밝혔다. 문미숙기자

공시가 뛰니 재산세 부담 커졌다

<토지·주택>

재산세 부과액 큰 폭 상승 제주시 전년보다 24.8% ↑ 서귀포시도 19.3% 증가세

236건, 98억9600만원 ▷건축물분 3만7853건, 141억9900만원 ▷선박 601건, 7100만원 ▷항공기 6건, 1200만원으로 전년(202억6400만원) 대비 19.3% 증가했다.

제주지역 공시지가와 개별주택공시가격 상승 여파 등으로 재산세 부담액이 1년 전보다 두 자릿수의 높은 상승률을 나타냈다.

서귀포시는 지역 내 주택과 건축물, 항공기, 선박 등의 소유자에게 7월 정기간 재산세 10만8696건에 241억7800만원을 부과했다고 9일 밝혔다. 부과된 재산세는 ▷주택분 7만

시는 이 같은 높은 상승률의 원인을 건물 신축가격기준액 상승(㎡당 69만원에서 71만원)과 주택분 재산세 일괄 부과기준액 상승, 중문·대정·성산지역 아파트와 분양형 건축물 신축, 공시지가 상승(11.95%), 개별주택공시가격 6.74% 상승 등의 영향으로 분석했다.

제주시 지역에서도 재산세 부담액이 높은 상승률을 보였다. 제주시에

따르면 시가 부과한 올해 7월 정기간 재산세는 586억원(25만2534건)으로 작년과 비교해 116억원(24.8%) 늘었다. 부과 대상별로 보면 주택 245억원(17만8409건), 건축물 273억원(7만2924건), 선박 4억원(1123건), 항공기 64억원(78건)이다.

한편 재산세 납부기간은 이달 16일부터 7월 31일까지로, 납세고지서가 없어도 은행 현금자동입출금기(ATM)를 통해 현금카드(통장) 또는 신용카드로 납부할 수 있다. 또 인터넷을 이용한 위택스(www.wetax.go.kr)와 지방세 ARS(1899-0341)를 통해 가상계좌이체·신용카드 납부를 이용하면 금융기관을 방문하지 않고도 납부 가능하다.

문미숙·고대모기자

에너지 아껴 쓰면... 최대 5만원까지 지원 탄소포인트제 인센티브 확대

액 증가와 지속적으로 에너지 감축에 실천한 참여자에게 인센티브 지급 등의 혜택을 제공 중이라고 9일 밝혔다.

탄소포인트가 부여되는 구간이 기존 2단계에서 3단계로 늘어나면서 전기, 도시가스, 상수도 등 에너지 사용량을 15% 이상 감축할 경우 참여자가 선택한 지급항목에 따라 연간 최대 5만원까지 인센티브를 제공한다. 또 4회 이상 에너지절약 실천으로 탄소포인트를 지급 받은 경우에는 에너지 사용량을 5% 미만으로

감축했다더라도 인센티브를 받을 수 있다.

지난해 말 기준 도내 탄소포인트 참여가구는 9만4300가구로, 탄소포인트제를 통한 온실가스 감축량은 2017년 1만7951t보다 144t 증가한 1만9399t이다.

탄소포인트제 신청방법은 한국환경경관단이 운영하는 탄소포인트제 홈페이지(https://cpoint.or.kr)를 통해 직접 가입하거나 주소지 읍면동 주민센터를 방문해 신청서를 작성하면 된다. 조상윤기자

에너지 아껴 쓰면... 최대 5만원까지 지원

탄소포인트제 인센티브 확대

에너지 아껴 쓰면... 최대 5만원까지 지원

탄소포인트제 인센티브 확대

탄소포인트제 인센티브 확대

탄소포인트제 인센티브 확대

탄소포인트제 인센티브 확대

탄소포인트제 인센티브 확대

탄소포인트제 인센티브 확대

탄소포인트제 인센티브 확대

탄소포인트제 인센티브 확대

탄소포인트제 인센티브 확대

탄소포인트제 인센티브 확대

그랜드보청기

여름시즌보청기 특별 할인행사!!!

방문고객 배터리 25,000원 → 15,000원
다양한 행사에 샴촌들 흔저 전화 주십시오!

최대 60% 파격 할인

- 보청기 보상판매 서비스
- 무료 방문 상담 및 지원 서비스
- 고급 모델 1+1(원플러스 원 행사)
- 착용 보청기 A/S 및 무료청력검사
- 70세 이상 어르신 보청기 지원금 안내
- 청각장애인 보조금 상한선 131만원 안내

NAVER **그랜드보청기** 검색해 주세요

☎ **064-725-9275**

시외버스터미널 동쪽 70m 행복빵집 건너편
제주시 서광로 240-1 (2층)

WIDEX
HIGH DEFINITION HEARING

제주센터

와이덱스 보청기

국민건강보험, 청각장애인 보장구 지원금 확대 실시
최대 131만원 까지 지원

- 소리왜곡이 적은 자연스럽고 편안한 음질
- 보청기만을 연구·개발하는 덴마크 와이덱스 제품
- 왜 와이덱스 보청기 일까요?
- 일관된 청각서비스 제공으로 고객만족도 향상
- 믿을 수 있는 철저한 사후관리

이 제품은 “의료기기”이며 “사용상의 주의사항”과 “사용방법”을 잘 읽고 사용하십시오.
판매처 : 와이덱스 보청기 제주센터

☎ **064) 755.1005**

상담예약

제주시청 ▲ 3층
와이덱스 보청기 ▲ 3층
CGV ▲ 3층
광양사거리 ▲ 3층

제주시 동광로 4, 삼옥빌딩 3층 (제주시청 광양사거리)

모든품종 감귤(묘) 분양

종사업등록번호 제18-2002-20-07호

◎ **황금향** ◎ **레드향** ◎ **천혜향** (1, 3년생)

- 유리실생 • 하례조생
- 미니향·레몬·영굴
- 한라봉 • 히로시마7호
- 블러드 오렌지(다로코)
- 천전(가와대) 온주(천지향 8년생) (당도 16브릭스 이상)

※ 묘목 접수 판매(1년생 묘목 접수만 취급)

★ 모든 묘목 샘플검사결과 바이러스 미검출

서귀증묘

064-733-7005, 010-6677-5753

사무실 임대

위 치 **한라일보사 1층**
(제주시 서사로 154)

전용면적 175㎡(분할가능)

용 도 사무실용

주차장 완비

문의 064-750-2530